



주 제:	“하나 더”	“연중 제 28 주일 “	2009년 10월 11일
복음 묵상:	[마르 10,17-30]	[지혜 7,7-11]	[히브 4,12-13]

길을 떠나는 예수님께 달려와 무릎을 꿇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을 묻는 사람은 이야기의 흐름상 재산이 많은 부자인 것 같습니다. ‘너는 계명들을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예수님께서서 대답하시는 것을 봐서는 율법을 잘 아는 바리사이파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는 그 많은 계명들을 잘 지키며 율법의 정신에 따라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율법도 잘 알고 있는 그는 아무 걱정 없이 괜찮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텐데, 왜 사생결단의 자세로 예수님께 영생의 길을 묻는 것일까요? 그는 계명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는 없음을 아는 듯합니다. 하지만 의롭게 살며 다재다능한 능력으로 부를 축적해 온 그의 귀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을 알기만 한다면 그것을 충분히 쟁취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에 찬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그러나 지혜를 갈구하는 그 눈빛은 이내 사그라지고 얼굴은 울상이 되어 물러갑니다. 부자는 ‘뭔가를 얻는 방법’에 대해 질문했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뭔가를 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재물도 명예도 얻었으니 내친김에 영원한 생명까지도 소유하고자 하였으나, 오히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얻은 것을 다 버려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무엇을 쫓아 여기까지 왔나’하는 삶의 허무함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이 부자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얻은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주님의 선물이고 은총이며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 보답하는 길은 나눔입니다. 주님께서서 이웃 사랑을 실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기에,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을 나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욕심이며 집착일 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하늘에 내 집을 짓는 선물이 될 수도 있지만, 구원에 이르는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시간, 재능, 명예, 권력, 건강 등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봉사하기 위한 주님의 선물임을 깨닫고 실천하는 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서 그런 우리의 다짐과 노력을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계십니다.(마르 10,21). (수원 박현성 신부님 강론에서)

가족 동정 및 기도 요청

- 주 예로니모 단장님과 도미니카 자매님 10/16 부터 10/27 까지 여정으로 한국에 다녀오십니다. 여행중에 주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되시길 기도합니다. 단장님이 안계신 동안에는 필립보 네리 형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 조정자 율리아나 자매님은 10/2 일 부터 10/30 까지의 여정으로 한국으로 여행을 떠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도록 기도중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순덕 짜리따스 자매님이 투병중에 있습니다. 건강하게 돌아오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알림:

고 송명학 (요한) 형제님 장례 일정

- 문상예식: 10/11(일) 오후 6시
Lima& Campagna Sunnyvale Mortuary. 1315 ollenbeck Ave.
- 장례미사및 하관식: 10/13 (화) 오전 10시 산호세 한국 순교자 성당.

SF 매스터코랄 창단 20주년 기념 연주회

- 김인숙 세실리아 성심 성가대 지휘자님 소속되어 있으며 출연합니다.
- 언제: 10월 11일 오후 7시
- 어디서: SF 협스트 극장

예수 고난회 강수근 신부님 초정 일일 성가 피정

- 누가: 예수 고난회 강수근 신부
- 언제: 2009년 10월 31일(토) (8:30 AM- 6:00 PM)
- 어디서: San Francisco



. 그때에 17 예수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어떤 사람이 달려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선하신 스승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18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느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선하지 않다.
 19 너는 계명들을 알고 있지 않느냐? ‘살인해서는 안 된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횡령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20 그가 예수님께 “스승님, 그런 것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 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21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며 이르셨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가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22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이 되어 슬퍼하며 떠나갔다.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23 예수님께서서 주위를 둘러보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재물을 많이 가진 자들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24 제자들은 그분의 말씀에 놀랐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거듭 말씀하셨다. “얘들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25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26 그러자 제자들이 더욱 놀라서,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27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며 이르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1분 명상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 (마태 5,3)

이 마음의 가난이란 것은 모든 행복의 첫째 조건이고 기본적인 조건이며 전체적인 조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은 하늘나라의 주인이 된다는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나눔이 있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나눔의 마음이
 가난한 마음인 것을...

여기서 우리는 마음의 가난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묵상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난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이란 말은 부유함의 반대가 아닙니다, 즉 돈이 없고 집이 없고 가진 것이 없는 것을 가난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마음의 가난이란 재물이나 권력이나 명예 등에 대한 욕심에서의 초탈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재물적으로는 풍족 하더라도 마음은 항상 근검 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로부터 오는 것이며, 원래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 가야할 인간의 근본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사랑;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 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 냅니다(1 코린 13,7).”